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6806.93	↓ 코스닥	799.36
	(-669.01)		(-38.07)
↑ 금리 (우고재 3년)	3.809	↑ 환율 (원·달러)	1502.30
	(+0.041)		(+0.90)

수백조 공장 증설에도
HBM 수급 한계
최소 2년은 공급난
02



‘부동산 슈퍼워크’ 집값·세제 방향 잡는다

국토부, 오늘부터 정책 토론회

김윤덕 장관·전문가·시민 참여
내일 금융위, 모레 재정부 거쳐
23일 대통령주재 토론회 열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앞서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부동산 전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연쇄 토론회가 14일 시작되면서 정책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주택 공급은 물론 금융, 세제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와 일반시민까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 15일에는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토론회, 16일에는 재정경제 분야 부동산 세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하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다.

공급확대와 대출규제와 관련 논쟁이 격화되겠지만 가장 이목이 쏠릴 부분은 세제다. 당장 이달 말에서 8월 초계면 확정될 세제개편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인지, 초고



코스피, 6800으로 ‘뚝’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으로 마감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쇄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장너 토론회’, ‘국민 혼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중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7월 8초 세금폭탄 정당화를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 추가세수, AI 패권결정 할 골든타임 재원”

李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4대분야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로 경제 새기회 청년 생애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초항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대규모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답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뤘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이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2027년 예산안이 아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메트로 韓줄뉴스



▲송영길 “鄭 얼굴로 총선 이길 것 같나…명청대전 없다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사진 뉴시스
▲추경호 “국회·부처 등 문턱 많도록 다니는 간절함 있어야”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 운영…연구용 시로봇 적극 구매”
▲박지원 “조국, 똑똑한 사람이 바보 같은 짓…지금 자숙할 때”

▲통영소방서,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유공자 도지사 표창
▲메디톡스, 의료진 대상 ‘맞춤시술법’ 학술 교육